

일본기업의 M&A 동향

- 세계적인 M&A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
- 일본기업과 아시아기업 간의 M&A도 확대. 특히 일본기업이 아시아 기업에 대한 M&A는 작년대비 84%증가하여 과거 최대를 기록
- 아시아기업의 일본기업 M&A도 기술습득과 판로확대 목적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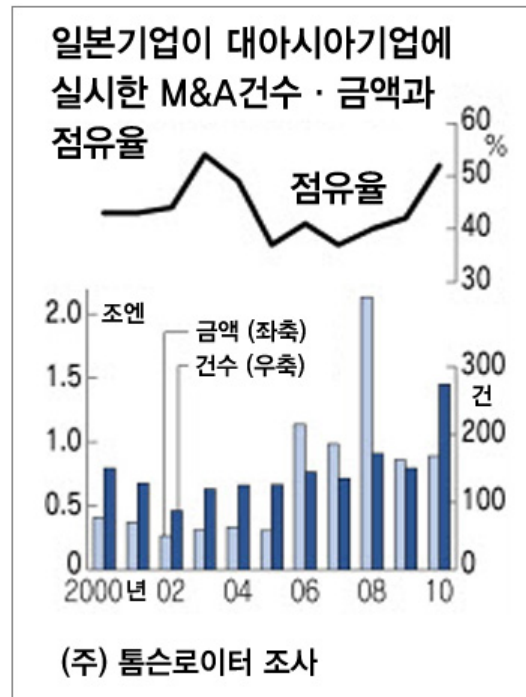
□ M&A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

- 톰슨 로이터(Reuters)에 의하면, 2011년 2월, 첫째주까지 세계 M&A 발표금액은 작년대비 69% 증가, 2000년 IT거품경제 이후 최대 규모
- M&A 확대배경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 전망과 금융 완화에 의한 Cash증가 요인으로 기업들이 적극적 글로벌 투자전략을 추진
- 일본에서는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의 합병, 아시히맥주가 '11년부터 2년간 최대 4,000억 엔을 M&A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M&A에 대한 일본기업의 관심도 확대되는 추세

□ 일본기업의 외국기업 M&A 동향

- 2010년 일본기업의 외국기업 M&A 건수 가운데, 아시아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2%
- 일본기업에 의한 아시아기업의 M&A가 확대된 이유는 높은 성장

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아시아기업을 인수하여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기업의 전략이 담겨 있음



- 기린맥주는 싱가포르 음료회사를 일본제지그룹은 중국제지기업에 출자확대. 동양고무는 말레이시아의 타이어 회사를 인수
- 자금여력이 풍부한 아시아기업에 의한 일본기업 M&A도 증가되는 추세. 전년대비 24% 증가한 73건을 기록
 - 금액 베이스로는 87% 증가한 1179억 엔
 - 말레이시아기업이 홋카이도의 리조트시설을 매수하는 등 동남아시아기업과 펀드가 일본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
 - 그 밖에 중국기업이 파나소닉의 자동차용 니켈수소전지사업을 인수한 사례도 주목되고 있음
 - 일본기업을 M&A함으로써 △기술력, △브랜드를 획득하고,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아시아기업의 전략이라 할 수 있음

□ 중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M&A 특징

- M&A컨설팅회사인 RECOF에 의하면, 2010년 1-8월동안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M&A건수는 26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30%를 차지

(1) 제조업 인수를 통한 일본 진출

-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일본 중견·중소기업 제조업을 매수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기업의 對일본 투자 패턴

* 04년 중국이 인수한 공작기업인 이케가이(池貝)는 05년대비 09년 매출이 1.2배, 순자산은 1.4배 증가

(2) 최근 비제조업까지 확대되는 추세

-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M&A는 제조업이 중심이었으나, 최근에는 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까지 확대

* 가전양판점인 ‘LAOX’, 스포츠소매업인 ‘PHENIX’, 라면체인점인 ‘도산코’ 등 非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

* 비제조업에 대한 M&A는 △일본기업의 경영노하우 학습, △중국기업과 일본기업 간의 상호보완 관계 구축, △인재교류, △일본에 입국하는 중국관광객을 감안한 인수 등이 특징임

- 일본기업이 중국기업의 M&A를 수용하는 이유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과 100% 투자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것보다 리스크 분산할 수 있다는 점들임

□ 시사점

- 중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M&A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
 - 일본기업 입장에서는 「기술, 노하우, 브랜드」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본기업은 중국기업의 투자를 받아드림으로서 경쟁력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
- 우리기업들도 중국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△경영이 어려워진 일본기업에 대한 집중적 M&A전개, △인수를 통해 일본기업에게도 메리트(한국 시장, 신흥국 공동 진출, 기술거래 확대 등)가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
 - 우리기업들도 일본기업에게 M&A가 공동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 알릴 수 있다면, M&A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<참고자료>

日経新聞(2011.2.23)

季刊「国際貿易と投資Winter 2010/No82」